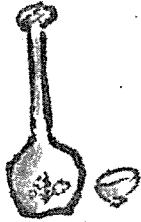


자궁암과 여성건강



홍 광 선

환갑 60세를 넘기면 장수했다던 말은 옛말이 되고 식생활 개선으로 인한 영양학적 에너지 공급이 향상되고 의학의 전격적인 발전에 힘입어 70~80세를 넘겨도 장수했다기 보다는 “살만큼 살았구먼”하는 정도가 되기는 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은 죽음이란 것이다.

누구나 한번은 겪어야할 당연한 사실이지만은 사람들은 “인명은 재천”이라고 자위하면서도 이를 연장하려 무던히도 노력하여 왔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한손에 쥐고있던 진시황제도 불노초를 동방에서 구하려 애를 쓰다가 결국은 하늘의 주어진 명만은 연장시키지 못하고 타계 하고야 말지 않았던가.

얼마전엔 농약때문에 건강을 해친다고 탁월한 착상과 건강유지의 일념으로 도시양반이 시골에 땅을 사놓고 작물에 농약을 주지않고 재배하여 그 곡식을 갖다 먹는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정말 장수하려 “여간 애쓰는게 아니구나” 하고 생각 했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거듭하는 의학기술 앞에서도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죽음의 길로 바쁘게 안내하고자 분주해하는 명 안내자(?)가 있으니 바로 암인 것이다.

원인도 아직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많은 의학자들이 이를 규명하려 그렇게도 연구를 거듭해 왔건만 아직도 많은 과제가 남아있나 보다.

담배를 피우면 폐암에 많이 걸린다는니, 탄 음식을 먹으면 위암에 걸린다는니, 선천적으로 정상 세포가 암 세포로 변하는 유전적인 체질을 갖고 있다는니, 공해때문에 암 발생율이 높아질것이라느니, 너무도 주위에서 많이 들어온 얘기들이다.

정말 이것때문에 암에 걸리는것이 틀림없다는 결론이 내려질 날은 언제런가. 또한 암이란 우리몸의 어느 장기든지 발생할수 있고 원인의 불분명에 따라 치료의 길은 험난하기만 하고 수술로 암 조직을 제거해도 암세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세포가 다시 증식한다고 하니 사람들은 암이란 안내자를 만나면 대다수가 곧 죽음을 생각할만도 하다.

정말 공포의 대상이 아닐수 없다. 자궁암, 위암, 폐암, 방광암, 뇌척수암, 피부암등 많은 암이 있지만은 그러나 암도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 많은 암중에서도 가장 치료율이 높은 것이 여성의 자궁암이며 경부암과 채암으로 나누이는데 초기에 발견만 하면 상피내암 시기에는 거의 100% 치유할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I기에서 IV기까지 나누는데 I기에는 80% 전후, II기에는 63~65%, III기에는 35~36% 정도 치유될수 있으며 IV기의 경우에도 경부암에서는 12.7%의 치유율을 보이며 채암에서는 0%를 나타낸다고 하니 여기에서도 초기 발견과 초기 치료의 중요성을 알수가 있다.

남자에게서는 위암이 여성에게서는 자궁암이 가장 많은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비교적 병원에 가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꺼려하다가 때가 늦어 치료의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은것 같다.

자궁암은 초기에도 별증상을 느끼지 못하며 대하나 월경량의 증가, 부정성기출혈, 접촉출혈 정도의 미약한 증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것도 초기발견을 저해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자신은 아무 증상이 없다고 생각되더라도 일년에 한번 정도는 정기검진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미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기검진을 실시하여 거의 정복상태에 있으나 우리나라 여성에게는 상당한 %의 자

궁암이 있다는 사실은 크게 안타까운 일이며 여성 자신이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킨다는 일념으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되리라고 믿는다. 자궁암의 진행이 깊어질수록 치유율이 떨어진다는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이나 만일 초기에 발견치 못하여 치유는 된다해도 자궁제거 수술을 받게 되어 아기를 갖는다는 여성 본연의 성스러운 임무를 수행치 못할때를 가정한다면 이 안타까운 심정은 무엇으로 표현될것인가.

필자는 병원에 근무할때에 어떤 이유에서 자궁제거 수술을 받고 “나는 석녀다”라고 자기를 확대하며 안타까와 하는 여인을 본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여인에게 무어라고 위로의 말을 했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초기발견과 조기치료의 중요성만은 절실히 느끼고 있는 터이다.

이제 건강관리협회에서 자기채취기를 이용하여 자궁암 검사를 하게 되었다. 자기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직접 가검물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검사결과도 집에서 우편을 통하여 받아 볼수 있다.

병원이 두려워 꺼리던 분이나 부끄러워 부인파에 가지 못하던 분에게는 얼마만큼의 희소식이 되리라 생각한다.
(健協인천직할시지부 검사소장)